

일체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길...사경 20년

이운용 작품전...6월 18일까지 아라아트센터·물파스페이스



서예경력 50년의 이운용 불자

“결혼하고부터 절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불교를 미신, 기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불교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50쪽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됐죠. 이후 서예작가였던 저의 작품 세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죠”

이운용 작가가 사경과 서체추상 작품을 동시에 선보이는 전시를 마련했다. 6월 1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사경)와 물파스페이스(서체추상)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경 14점과 추상 38점으로 대중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경으로는 <법화경> <금강경> <불설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사경 작품 중에는 <법화경> 전체를 먹으로 사경하고 번상도에 전문가

지 완성했는데 그 길이만 27.5m다. 작가는 작업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루에 9시간씩 사경을 하다보면 엉덩이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완성하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죠.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면서 부처님의 법열에 흠뻑 젖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환희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는 늘 참선수행하고 광명진언을 염하고 난 뒤 작품에 임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부처님과 함께한다. ‘고해(苦海) 중의 모든 중생들 광명 찾아지이다’라는 발원을 시작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작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작품 하나하나에 담았다.

이운용 작가는 이번 <법화경> 작품을 송담 스님에게 보여드렸더니 당신의 진필로 법어를 내려주셨다. 스님은 “백년의 인생 살이는 뜬 구름이요, 물 가운데 물거품이라 / 알지 못해라 종일토록 누구를 위해 바쁜가 / 만약 바쁜 가운데 참 소식을 알면 / 한 떨기 연화가 붉은 물속에서 피느니라”라는 뜻이 담겨있다.

반야심경과 진언을 그림으로 표현한 서체 추상도 눈길을 끈다. ‘Panna’는 열일곱 작품을 먹색에 노랑 파랑 빨강 등을 가미해 공의 세계를 표현했다. 여기에 진언으로 표현되는 만트라 23작품은 내면의 울림을 보여준다.

“서체추상화는 서양회화와는 다르게 작업을 했죠. 서예 필기구로 먹에 수채물감과 아크릴 등으로 색을 곁들였죠. 이 작품들 역시 항상 광명진언을 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모든 작품을 대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서예가였던 작가에게 사경과 추상화라는 또다른 작품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녀가 서예가에서 사경과 서체추상화를 시도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 공부를 한창 할 때 보던 <천수경>도 그냥 <천수경>이 아니었어요. 그 뜻과 구절구절이 너무 와닿아 울컥 울컥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죠. 부처님이 늘 제 곁에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서예 작가로 활동하던 터라 그때부터 다양한 서체로 경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지장경>을 3m 장지

수행 기도도 하루 일과 시작
모든 사람 행복 발원 기도
사경·서체추상 동시 전시

에 완성했는데 지금은 금산 극락사 후불탱화로 모셔져 있죠.”

이렇게 작가는 사경 작품을 모아 10년전 환갑을 기념한 첫 사경전을 열게 되었다. 당시 전시를 관람했던 허 석주 스님의 인연은 특별하다. “때마침 스님과 같은 시기에 전시가 열렸는데 석주 큰스님께서 전시를 구경 오셨어요. 그때 ‘무구정광대다라니’가 마음에 든다며 작품을 사가셨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석주 스님께 글씨 하나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스님께서 자신의 의(慈室忍衣)를 말씀하셨죠. ‘자비로움으로 집을 짓고 인욕으로 옷을 삼는다’는 뜻으로 스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붉은색 종이에 금니로 넉넉한 스님

의 인품을 담아 예서체로 표현해 선물해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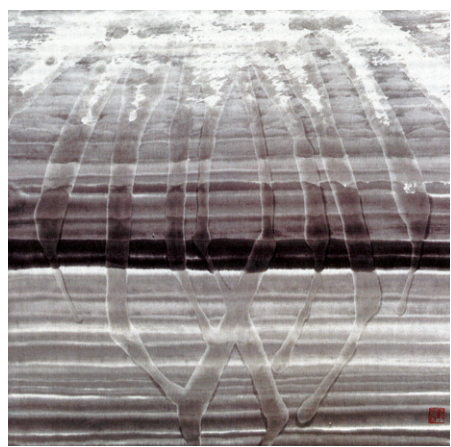
이후 작가의 사경은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 복장에 봉안되는 등 유명세를 탔다. 그렇게 첫 개인전 이후 10년 동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경을 했고 서체 추상화를 그려 2013년 다시 전시를 열게 된 것이다.

굳이 전시를 위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환희심을 표현하다 보니 전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운용 작가. 그녀는 오늘도 수행의 공덕을 작품에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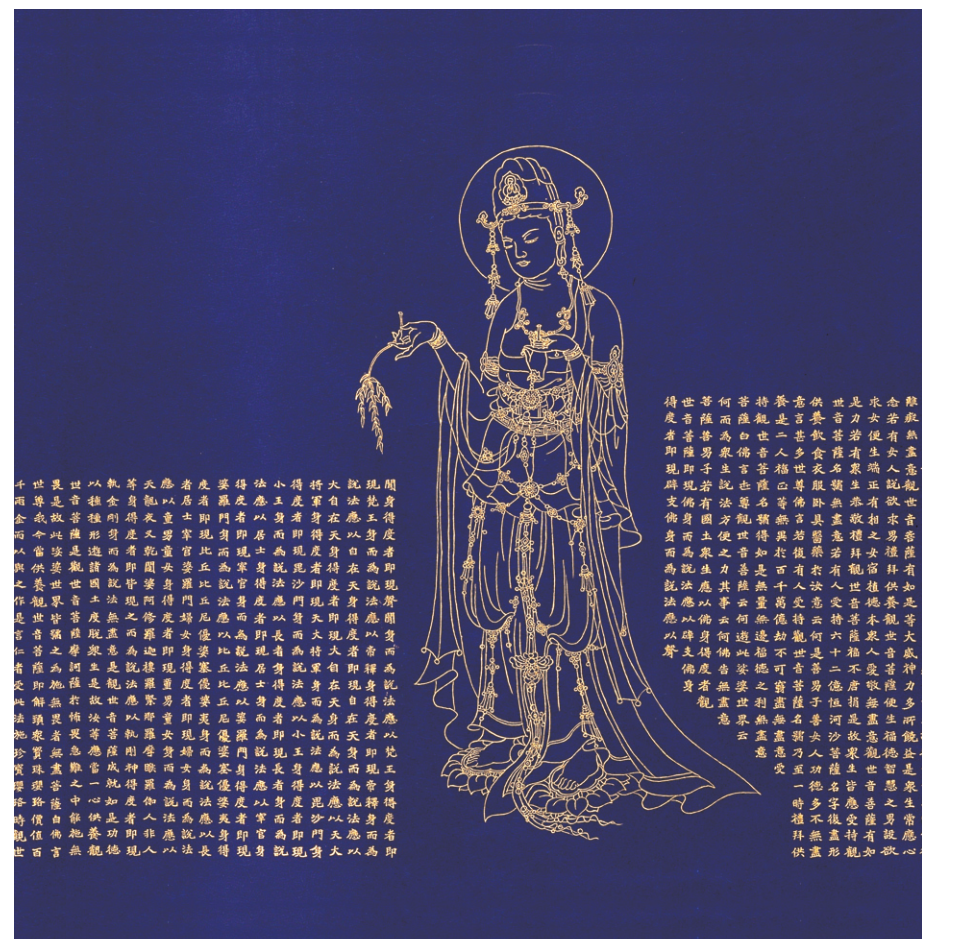
이운용 작가는 1940년생으로 인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1986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울 백악미술관과 대전 한림갤러리(2001)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초대전에 참여했다.

사경 서예·아라아트센터(02)733-1981
서체추상·물파스페이스(02)739-1997

정혜숙 기자 twjhs@hyunbul.com



반야심경 서체추상시리즈 'panna 16'



이운용 작가가 6월 18일까지 아라아트센터(사경)와 물파스페이스(서체추상)에서 각각 전시를 연다. 작품은 '묘법연화관세음보살보문품' (감자씨에 금니).



故 석주 스님께 선물 드린 '자실인'. '자비로움으로 집을 짓고 인욕으로 옷을 삼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세상의 꽃으로 피어난 부처님의 말씀

불화작가 양선희 개인전 '꽃 드니 미소 짓네'

가슴의 미소와 해가 스님의 구법행이 꽃으로 태어났다. 불화가 양선희 작가의 '꽃 드니 미소 짓네'가 6월 12일~18일까지 중우미술문화재 전수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양선희 작가는 법화경 내용을 주제로 연꽃, 아사화(御賜花), 보상화(寶相華)로 부처님 말씀을 표현했다. 그녀의 꽃은 꽃밭에 만발하기도 하고 꽃병을 만나기도 하며 연못에서 피어나기도 했다. 그런 꽃들은 가슴미소(迦葉微笑) 조사서래(祖師西來) 묘법연화(妙法蓮華) 설야구법(雪夜

求法) 등으로 태어났다. 특히 '가슴미소'는 가슴의 연화미소를 향아리에 담긴 꽃으로 표현했다 "부처님의 마음을 꽃에 담아 보았습니다. 향아리는 부처님으로 꽃은

고려불화 기법 현대적 해석

6월 18일까지 전수회관서

상스럽고 좋은 일을 표현했죠. 그리고 제 그림의 꽃은 국가가 번창하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염

원을 담았습니다.”

양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고려불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고려불화의 배제기법을 사용, 염색된 비단에 천연석채인 석록, 석청, 표주, 석환과 천연식물성염료인 쪽과 연지 그리고 순금을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꽃의 모양은 봉원사 연산재 영단의 꽃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죠. 현대인들에게 불화가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양 작가는 앞으로 불화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통불화를 그리는 작가지만 대중들에게 불화가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양선희 작 '가슴미소'

을 알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故강태기 추모 공연 '이뭇꼬'

6월 16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연극배우 강태기 씨의 대표작 '이뭇꼬'가 무대에 오른다. 강태기 추모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6월 16일 오후 3시, 7시 각각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강태기 추모특별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정광진 씨가 극작과 연출을 맡은 창작연극 이뭇꼬는 지난 2011년 강태기 씨가 주연을 맡았다. 당시 <이뭇꼬>는 중견연기자들의 탄탄한 연기과 심오한 대사 그리고 잘 짜인 대본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서울과 대구 공연에 이어 지난해 2월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세 번째 공연을 올려 불교계 안팎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태기 씨



가 6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연극은 잊혀지는 듯했다. 2013년, 고인이 연극사에 남긴 흔을 기리고자 다시 '이뭇꼬'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고인을 대신해 배우 이정성 씨가 무명 스님 역을 맡는다. 또한 박경득(대오 스님 역), 박경근(무불 스님 역), 임홍식(화부 역), 나재균(변호사 역), 이정주(노자인 역), 김재경(노숙자 역), 조주경(어인 역), 홍순이(무명스님 역) 씨 등 중견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정혜숙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안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생명 에너지를 글썽하게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 전통
초상의 일과 같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의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